



국제표준화회의 참가보고

3GPP PCG/OP

박정식 / TTA 표준화본부 전파방송팀 차장

- 일시 : 2004. 10. 6(수) ~ 10. 7(목)
- 장소 :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 참석자 : TTA, ATIS, ETSI, TTC, ARIB, CCSA 6개 표준기관 및 시장기관 대표 등 50여 명
- 주요의제 : 3GPP 기술분과 조직개편 논의, OMA와의 협력관계 논의 등

가. 서론

GSM 기반의 비동기식 IMT-2000 이동통신 시스템 및 서비스 표준규격을 개발하는 3세대 이동통신 협력 프로젝트(3GPP: 3rd Generation Partnership Project)의 PCG/OP 회의가 10월 6일에서 7일, 양일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TTA 주최로 개최되었다. PCG/OP 회의는 3GPP의 최고 상위 의결기구로서 1년에 2번 개최되는 회의이다.

나. 주요 회의결과

- 기술분과(TSG) 조직개편 논의
기술분과 개편 논의는 3GPP 사무국인 MCC의 예

산을 절약하자는 목적에서 촉발되었던 이슈로서, 논의가 시작된 후 경비절감보다는 조직의 효율적인 재구성에 더욱 초점이 맞춰졌다. 기술분과 중 CN과 T가 가장 작은 분과로서 통합 시 규모뿐만 아니라 작업 효과면에서도 시너지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어 두 분과에 대한 통합이 제안되었고, 최종적으로 CN과 T를 통합하여 새로운 기술분과를 신설하고 명칭을 TSG-CT로 정하였다. 단, T 산하의 실무반 중 T1은 TSG-RAN으로 이동키로 하였고 기존 5개의 기술분과에서 총 4개의 기술분과로 축소 개편되었다(SA, RAN, GERAN, CT).

본 결과의 후속작업으로서 새로운 기술분과 CT와 RAN(T1의 합류로 인해 새로운 기술분과로 간주됨)의 의장단을, 산하 실무반을 포함하여 2005년에 새로 선출키로 하였다. 이는 CT와 RAN에는 기존 의장단의 재출마가 가능해짐을 의미하는 것이다. 기술분과 통합으로 의장 수가 줄어든 대신에 부의장을 3명까지 둘 수 있도록 하였는데 이는 각 표준기관간 의장단 진출수의 레벨을 맞추기 위한 방안이라 할 수 있다.

3GPP는 우리나라 의장단 진출이 미흡했던 만큼 새로운 의장단 선출은 우리나라에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현재 TSG-T의 의장인 삼성전자 박상근 전무가 유일함). 국내 참가사 사전협의를 통해 의장단 진출전략 수립이 요구된다.
이와 같이 변경된 조직은 2005년 3월 총회 이후부터 운영될 것으로 예상된다.

○ 2005년도 PCG 의장/부위원장 선출

1년간 TTA의 위구진 박사(전파연구소)가 PCG 의장직을 수행하였고 1년 임기가 다함에 따라 새로 PCG 의장 및 부위원장을 선출하였는데 Mr. Karl Heinz Rosenbrock(ETSI)이 새로운 PCG 의장으로 임명되었으며 Mr. Kohei Satoh(ARIB), Mr. Asok Chatterjee(ATIS)가 선임되었다.

○ 각 기술분과의 작업현황 점검

TSG-SA에서는 Release5까지의 codec 규격상태가 안정적이 되었음을 보고하였다. 보고 중 codec을 3GPP 규격에 넣어 확정해 놓을 경우 codec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와의 협상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되었으며, 외부 기구의 다른 licensing 정책문제 처리에 대해서도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에 대해서는 GSMA와도 의견을 교환한 후 차기 PCG에서 다시 논의키로 하였다.

TSG-CN에서는 ITU, NGN, TISPAN과 3GPP 업무중복 가능성을 우려하여 TISPAN 및 fixed broadband Change Request(CR) 처리이유에 대해 질의가 있었으며, 동 CR은 fixed가 아닌 WLAN interworking의 CR로 처리된 것이며, 아직 NGN 환경으로 가고 있지는 않은 것을 확인하였다.

TSG-RAN에서는 Rel-99, Rel-4 CR이 점점 줄어들고 있으며, Rel-6 완성에 모든 노력을 기울이기로 함을 보고하였다. 향후 미래 표준 아이টে

MIMO 등의 작업은 일시 중단되었고 OFDM에 대한 study는 끝났으나 어떤 기술적인 결론은 내리지 못하였다. 2004년 11월 RAN Evolution workshop에서의 논의를 지켜볼 것이라고 보고하였다.

TSG-T에서는 기술규격 34.121(FDD), 122(TDD)가 약간 느리게 진행되고 있으며, 대부분의 Rel-6 item은 완료되었음을 보고하였다.

TSG-GERAN에서는 Release 4는 안정된 상태이며, Release 97, 98에 대한 매우 늦은 CR을 처리하였음을 보고하였는데 이는 이미 시장에 나와 있는 GPRS 단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 2004년 예산집행 현황 및 2005년 예산안 검토

2004년도 예산집행은 분기별로 별다른 문제없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었으며 2004년 예산은 계획보다 적게 사용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3GPP 예산은 매년 점점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며, 2005년의 경우도 2004년보다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더 이상의 예산삭감은 곧 MCC 인력 삭감으로 이어져 3GPP 업무수행에 많은 차질이 예상되므로 이를 감안한 예산 책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TSG-T가 추가 요청한 TTCN 관련 경비는 그 활동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파트너들이 지원하기는 어려우므로 voluntary resource를 확보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MCC 사무국에서는 3GPP 멤버를 대상으로 동 TTCN 활동을 위한 voluntary contribution을 요청키로 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GSMA 대표는 동 TTCN 개발이 GSMA에서 매우 중요하므로 이에 대한 지원 가능성을 살펴볼 것을 약속하였다. 최종적으로 2005년도 예산안은 총 5,782k EURO가 승인되었으며, 정확한 금액은 2005년 멤버 수가 확정된 후 차기

회의에서 제안될 예정이다.

○ OMA와의 협력관계 논의

OMA와의 협력을 논의키 위해 OMA Board 의장인 Jari Alvinen이 초청되어 본 회의에 참석하였으며 OMA 측에서 Cooperation Framework이 제출되었다. 본 내용에는 OMA 규격의 보다 자유로운 사용을 위한 OMA의 IPR 정책이 변경되었는데 양 기구 사이에 어떤 구속력(binding)을 가지는 것은 아니며, 원칙에 대하여 공감대를 형성하자는 목적을 가지고 작성된 문서임을 확인하였다.

동 문서에 대한 3GPP의 입장을 정리하여 알려주기로 하였으며, e-mail correspondence로 논의하기로 하였으며 각 표준기관의 legal review와 TSG leader input을 포함하여 2004년 말까지 의견을 접수하고, 2005년 3월까지 논의, 협상을 마무리 짓는 것으로 일정계획을 수립하였다. 단, 기술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두 기구 사이의 행정적인 문제처리와 별도로 서로 병행하여 진행하는 것에 대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확인하였다. 이에따라 TSG leader들이 OMA 협력문제에 관한 common guideline을 작성할 예정이다.

○ 기타

ATIS(미국)가 요청한 새로운 Work Item(WI)인 VoIP for fixed and wireless network에 대한 특별 고려사항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며, 개념에는

찬성하나 ATIS와 개별회원(IM)이 공동으로 제안할 것을 권고하였다(표준기관보다는 개별회원의 직접 제안에 무게를 둠). 또한 이미 CN 기술분과에서 비슷한 item이 진행되고 있으며, ATIS의 VoIP 기능 요구사항을 거의 모두 만족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다. 결론

3세대 이동통신이라고 불리는 IMT-2000은 3GPP와 3GPP2라는 협력 프로젝트를 통해 표준의 개발이 이루어졌으며, IMT-2000 표준은 어느정도 완성된 상태이며 현재 업그레이드 작업을 진행중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기술분과의 조직개편 및 OMA와의 협력관계 정립이 주요 이슈였는데, 그중에서 기술분과의 조직이 개편되었다는 것은 제1기의 3GPP가 끝나고 제2단계의 3GPP로 넘어감을 의미한다 하겠다. 3GPP는 3GPP2에 비하여 유럽세가 강하여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의 영향력이 미비하였는데 이번을 계기로 의장직의 확대 등을 통해 우리나라의 입지를 높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11월초에 토론토에서 3GPP는 RAN Evolution workshop을 개최한다. 이는 ITU에서 이야기 되고 있는 4G 부분에 있어서 3GPP가 이어서 표준작업을 하고자 하는 의미로 해석되며, 본 워크숍의 결과가 3GPP에 어떻게 input을 주고 영향이 가해지는지 주지해 지켜볼 필요가 있다. 